

문화방송 노조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최성혁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전화: 789-3883~6 팩스: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www.mbcunion.or.kr

2021년 10월 13일(수)

MBC 노사, 기본급 2.8% 인상 합의

지부별 보충협약 교섭 본격 돌입



지난 6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주 가까이 진행돼 온 2021년도 임금협상(공통협약)이 타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회사와 8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본사는 물론 전국 16개 MBC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급 2.8% 인상안에 합의했다. 노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13일) '2021년 임금 협약식'을 열고 공통교섭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MBC 본부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MBC 단일 기본급의 일괄 공통 인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MBC본부 임시 대의원회에서는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상세한 배경 설명이 있었다. 합의 결과에 대한 의결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39명의 대의원 중 32명이 참석했으며, 투표를 통해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21년 임금협상 공통교섭 잠정 합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 17개 지부 동시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전국 단일 노조인 MBC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한 공통교섭에서 성공적으로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낸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15년에도 한 차례 기본급 인상이 있었지만, 당시 회사는 MBC본부의 전국 단일 대오를 흔들려 놓을 목적으로 지역MBC는 배제한 채 서울MBC의 기본급만 단독 인상시킨 바 있다. 이후 조합은 2018년~2019년에 걸쳐 전국 지역사와 본사의 기본급을 다시 통일시켰다.

당초 MBC본부의 임금협상 목표는 기본급 9.5% 인상이었다. 2016년 이후 5년간 기본급이 동결되면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MBC 구성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MBC의 임금수준은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낮아졌다. 게다가 2018년과 2019년, 본사의 연속된 적자 경영에 서울MBC 구성원들은 퇴직금 단수제, 20년차 이상 성과임금제 등 회사가 요구한 각종 비용 절감안을 고통 속에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본사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된 만큼 조합은 기본급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회사는 그러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지부사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또다시 기본급 동결을 주장했고, 조합은 끈질긴 협상 끝에 기본급 2.8% 인상이라는 협상안을 이끌어냈다.

최성혁 MBC 본부장은 "10년 만에 처음 맞는 전국단위의 기본급 인상 합의이다. 적폐시절에는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임금협상 자체가 무산되었고 정상화 이후로는 비상한 경영악화 상황 때문에 임금이 동결 됐다. 오늘 이 합의는 MBC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임금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 각 지부별 보충협약을 위한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남아있다. 특히 MBC본부 서울지부는 지난해 서울MBC 구성원들이 퇴직금 단수제 등으로 큰 희생을 치른 만큼 조만간 시작될 보충교섭에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여 회사의 경영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쟁취해내겠다는 결의다. 또한 200명이 넘는 전문직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성과를 낼 경우 구성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이익공유제' 관련 논의도 보충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2021년 임금협약서 (공통협약)

전국 문화방송(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MBC경남, 춘천문화방송, MBC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MBC강원영동,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이하'회사'라고 합니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조합'이라고 합니다)는 2021년 임금 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2021년 기본급(호봉)을 2020년 대비 2.8% 인상합니다.
2. 제1항의 기본급 인상은 본 협약서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3. 보충협약은 추후 각 사 별도 협의기로 합니다.
4. 회사와 조합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퇴직급여 누진제도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5. 제4항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각사 별도의 협약으로 정합니다.